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1 호

2022 년 10 월 19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11/29)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및 신청 안내
3. 법무부 주최-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안내(10/28, 11/4)
4. [Monthly Insights 10 월호] BIS Impact Forum 및 Uniting Business LIVE 요약

■ 본부 소식

1. 에넬(Enel), 리드 엘제비어(RELX), UNGC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추가 선정
2.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출시 안내
3. UNGC와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유엔 교육정상회의에서 협력 방안 논의
4.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 발족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HL만도

■ SDGs 소식

[SDGs 솔루션] 새로운 차원의 도시농업 -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

■ UNGC & 회원사 뉴스

1. 카카오페이 "국내 핀테크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2. 네오이문텍,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도입 첫삽
3. 국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 환경부문 개선돼
4. "부패는 기업의 비용...기업 내 반부패 문화 필요"
5. [BIS 임팩트 포럼] "부패 방지 위해 예방 중심 ESG 정보 공시 필요"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얼리어답터 참여회원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11/2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1월 29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열리는 『2022 Korea Leaders Summit』은 급변하는 시대
공정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세 프로그램 및 등록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및 신청 안내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BHR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이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이행 과정을 가속화하는 6 개월 간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수립 및 실행 가능한 계획 개발을 통해 참여사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사는 일련의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 실사 과정을 수립하고, 고유한 주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처음 런칭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는 한국협회를 포함한 30 개국 이상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및 노동권 존중을 향한 비즈니스 공동의 영향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12 월 16 일에 마감되며, UNGC 회원사는 본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을 대표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두 명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워크숍에 참석하고, 인권 및 노동권 실사 절차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서 동료들과 협의합니다. 담당자는 지속가능성, 인사, 기업 지배구조 및 리스크, 혹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부서 등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두 명의 담당자와 함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임원 직급인 **“챔피언”**을 지정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여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사와 함께 진행되는 여섯 번의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 에서 진행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약 50 시간, 매주 2 시간 정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

세부 내용	일정(안)
참여사 모집	2022년 10월 - 12월 16일
런칭 세레모니	2022년 11월 29일 (Korea Leaders Summit)
킵오프 세션	2023년 2월 中
모듈 1	2023년 2월
모듈 2	2023년 3월
모듈 3	2023년 4월
모듈 4	2023년 5월
모듈 5	2023년 5월 - 6월
모듈 6	2023년 6월

• 프로그램 내용



[\[참가 신청 바로가기\]](#)

[\[브로슈어 다운받기\]](#)

[\[FAQ 자료 다운받기\]](#)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바랍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안내 (10/28, 11/4)

기업과 인권 세미나

ESG 담론 확산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방안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동향」 소개 및 「산업별 기업 인권경영 사례」 공유

• 일시 | 1부: 10월 28일(금) 14:00~17:00, 2부: 11월 4일(금) 14:00~17:00

• 신청방법 | 아래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참석 등록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세미나 생중계 링크 별도 송부예정

1부 10월 28일 (금)	14:00~14:05	(5분)	축사영상 및 좌장 소개: 사회(법무부 인권정책과)
	14:05~14:20	(각 5분 내외)	축사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종업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20~14:25	(5분)	발제자 소개: 좌장(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
	14:25~14:40	(15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소개(법무부 인권정책과)
	14:40~15:10	(30분)	주제발표 1: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민창욱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15:10~15:40	(30분)	주제발표 2: K-ESG 가이드라인 인권경영 지표 및 정책 추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15:40~15:50	(10분)	휴식
	15:50~16:20	(30분)	사례발표 1: 기업 인권경영 사례(㈜풀무원)
	16:20~16:50	(30분)	사례발표 2: 기업 인권경영 사례(㈜디알비동일)
	16:50~17:00	(10분)	Q&A 및 마무리
2부 11월 4일 (금)	14:00~14:05	(5분)	좌장 소개: 사회(법무부 인권정책과)
	14:05~14:10	(5분)	발제자 소개: 좌장(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진행
	14:10~14:40	(30분)	주제발표 1: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 및 인권경영 필요성 (남승현 국립외교원 부교수)
	14:40~15:10	(30분)	주제발표 2: 기업 인권경영 담당자의 역할(오승재 (주)서스틴베스트 전무)
	15:10~15:25	(15분)	휴식
	15:25~15:55	(30분)	사례발표 1: 기업 인권경영 사례(㈜두산)
	15:55~16:25	(30분)	사례발표 2: 기업 인권경영 사례(미정)
	16:25~16:45	(20분)	Q&A 및 마무리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oN1xFL2Np4RyjDAN6>

■ 세미나 관련 문의

gckorea@globalcompact.kr

• 주최 |  법무부

• 주관 |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참석 신청하기\]](#)
[\[참석 신청서 다운로드\]](#)

※ 사내 보안정책 등으로 참석 신청 링크 접속이 어려우실 경우 참석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4. [Monthly Insights 10 월호] BIS Impact Forum 및 Uniting Business Live 요약

BIS Impact Forum 과 Uniting Business LIVE 하이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Monthly Insights 2022 년 10 월호의 주제는 '**BIS Impact Forum 과 Uniting Business LIVE 하이라이트!**'입니다. 금번 Monthly Insights 에서는 Business Integrity Society(이하 BIS)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Society)의 후원과 세계은행그룹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19 년 10 월부터 2022 년 9 월까지 진행된 기업 반부패 프로젝트의 마지막 포럼, BIS Impact Forum 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어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BIS 임팩트 포럼>에서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교수의 강연을 통해 반부패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기술(Using Machine Learning For Anti-corruption Risk and Compliance)사용과 도입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유엔 총회 기간인 9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뉴욕에서 개최한 글로벌 이벤트, Uniting Business LIVE(UBL 2022)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로는 S&P Global 의 '직장 내 LGBTIQ+ 포용성: 가시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 보고서와 글로벌 통신 기업인 보다폰(Vodafone)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를 담았습니다.

<주요 콘텐츠>

1.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 Impact Forum>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이번 Monthly Insights 를 통해 9 월 30 일, BIS 프로젝트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던 <BIS Impact Forum>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 Impact Forum>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BIS Impact Forum '청렴 벨 타종식' 참가 기업 단체 사진

먼저 행사 취지 및 BIS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한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의 개회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과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의 축사와 인사말, 그리고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의 이용선 대표의원 및 이용우 의원의 인사말과 반기문 제 8대 UN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연설을 담았습니다.

토크 콘서트 & 패널 토의



특히 포럼에서 열린 세 차례 열린 패널토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제공했습니다.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윤리적 기업문화 조성』, 『기업 반부패 제고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방안』, 『기업 반부패/윤리경영의 뉴노멀(New Normal)』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훈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이미영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최준우 현대모비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외 기업 내 반부패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나누었으며,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제공했습니다.

또한 영상 발표를 통해 참여한 이나 샌들러(Ina Sandler) OECD 정책 매니저는 발표를 통해 반부패 이슈와 인권, 노동, 환경 아젠다와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며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교수는 머신러닝 기술의 적용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방법론과 기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 BIS 프로젝트 주요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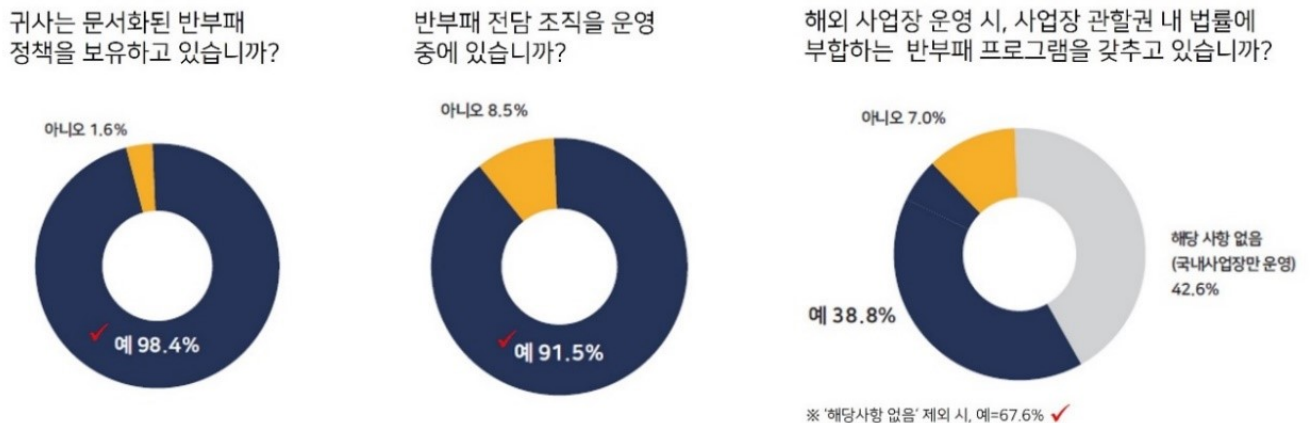


이어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을 발족하여 반부패 강화 관련 입법 제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21 대 국회의원 후보자 113 명에게 반부패 서약을 이끌어내어 주요 정당에 반부패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반부패 정책환경 조성 노력**, 헬스케어, 에너지 등 산업별 반부패 이슈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기업 반부패 역량 강화 노력**, BIS 프로젝트를 통해 130 여 개 기업·기관이 반부패 서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우수 이행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반부패 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간 노력을 인정 받아, 국제 반부패 공동노력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유일 우수 이니셔티브로 선정된 **반부패 공동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3. 기업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서베이 분석 결과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지난 8 월, 약 한달 동안 UNGC 회원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현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정리해 공유했습니다.

본 조사는 (1) 부패방지 환경 조성, (2)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3) 모니터링 및 개선의 3 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2018 년에 실시했던 서베이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BIS 프로젝트가 기업 반부패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문서화된 반부패 정책을 보유하고, 반부패 프로그램과 반부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체로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사업장 관할 내 법률에 부합하는 반부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약 68%에 그쳐, 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부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인사이트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 조지타운법대(Georgetown Univ. Law Center) 교수
前 Wells Fargo 뇌물수수 및 반부패 거버넌스 부사장

이어 포럼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구성한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BIS 임팩트 포럼>에서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부패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기술(Using Machine Learning For Anti-corruption Risk and Compliance)사용과 도입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5. Uniting Business LIVE 2022 핵심 내용 요약



이번 Monthly Insights 에서는 특별히 유엔 총회 기간인 9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된 Uniting Business LIVE(이하 UBL 2022)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UBL 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그를 위한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의 촉구를 위해,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으로 구성되어, 고위급 다자간 대화, 지역별 현황 및 이행 전략, 비즈니스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세션은 유엔에서 가장 권위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 중 하나로, 민간 부문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은 최고 경영자, 정부 관계자와 유엔 관계자, 개발 기관의 대표를 모두 소집해, 공동 노력 방안을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상호 연결된 글로벌 위기에의 대응과 전염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향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보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미국 협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을 통해서는 SDGs 를 어떻게 기업 전략과 핵심 운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협회 회원사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K-택소노미가 본격화되면서 녹색금융 시장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앞다퉀 녹색금융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녹색금융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녹색금융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녹색금융 투입이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꼽힘에 따라, 은행들은 녹색채권 발행에 앞다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의 녹색금융 인식제고 및 급증하는 기후리스크 측정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K-택소노미 본격화...금융권, 녹색금융 첫걸음 땀다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K-택소노미가 본격화되면서 녹색금융 시장도 비로소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부터 석유화학 업체들까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RE100 가입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올해 들어 금융사에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7. 본부소식



새로운 온라인 아카데미 코스 - SDGs를 위한
재무적 실천: CFO 원칙 이행 런칭



에넬(Enel), 리드 엘제비어(RELX),
유엔글로벌콤팩트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추가 선정

본부소식으로는 새로 런칭된 온라인 아카데미 코스에 대한 소식과, 유엔글로벌콤팩트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추가 선정된 두 기업에 대한 소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 GEK(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



[S&P Global]
직장 내 LGBTQ+ 포용성:
가시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보다폰(Vodafone)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Gender Equality Korea(GEK)의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향 콘텐츠로는 S&P Global의 직장 내 LGBTQ+ 포용성:가시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 보고서를 요약해 정리했으며, 다양성 우수사례로는 보다폰의 젠더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9767)

[\[Monthly Insights 전문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에넬(Enel), 리드 엘제비어(RELX), UNGC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추가 선정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존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에 더해,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인정, 공식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에넬(Enel)과 리드 엘제비어(RELX)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에넬(Enel)은 후원자로서, 리드 엘제비어(RELX)는 스폰서로서, 각각 거버넌스 부문과 SDG 16 번(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활동을 지지함을 서약했습니다.

에넬(Enel)과 리드 엘제비어(RELX)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성평등, 기후변화, 인권 및 노동권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걸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동료 학습 그룹(peer learning group), 싱크 랩(Think Lab) 및 이러닝(e-learning) 툴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공식 후원사의 재정적 지원은 약 69 개국에 위치한 지역 협회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특별히 전 세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여정(sustainability journey)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

“후원 및 스폰서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최고 수준으로 협력하며, 협회의 10 대 원칙을 준수하고, 변화를 가능케 하는 책임 있는 기업과 생태계를 통해 SDGs 의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의 글로벌 집단적 영향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1-2023 전략의 핵심이다. 협회는 후원 및 스폰서 기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10 대 원칙의 준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협회와 함께할 여러 기업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후원 및 스폰서 기업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에 대한 헌신과 해당 이슈 영역에서의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 년 동안 프로그램 비용을 편당합니다.

2022-23 년 글로벌콤팩트 후원 및 스폰서 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평등 부문:

후원 기업: 로레알(L'Oreal)

스폰서 기업: 메리케이(Mary Kay), 프로젝트 관리 연구소(Project Management Institute)

노동 부문:

후원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스폰서 기업: 맥코믹(McCormick & Co), 유피엠-키멘(UPM), 로레알(L'Oreal), 피르메니히(Firmenich)

기후 부문:

후원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에이아이에이(AIA)

스폰서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무디스(Moody's)

거버넌스 부문:

후원 기업: 에넬(Enel)

스폰서 기업: 리드 엘제비어(RELX)

SDGs 통합 부문:

후원 기업: 쓰리엠(3M), 에스에이피(SAP), 프로젝트 관리 연구소(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중소기업 참여 지원 부문:

후원 기업: 시멕스(CEMEX)

스폰서 기업: 사파리콤(Safaricom)

[자세히 보기](#)

2.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출시 안내

GUIDE

APPLYING A GENDER LENS TO SUSTAINABLE PROCUREMENT

ACCESS NOW ▶



조달 전략 및 관행에 젠더 렌즈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확장, 공급망 다변화, 평판 향상, 그리고 혁신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금번 개정된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는 구매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업 내에서 젠더 감수성을 보다 높은 조달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와 근거를 구축하는 방법
- 내·외부에서 명확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 전략 및 관행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
- 변화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구매 시 의사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툴 키트](#)의 개정판입니다.


자세히 보기

3. UNGC 와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유엔 교육정상회의에서 협력 방안 논의



UNITED NATIONS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2022

PRME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an initiative of the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2 년도 교육정상회의(Transformation Education Summit)에서 비즈니스, 교육계 및 정계를 아우르는 리더들을 한 데 모아 교육을 글로벌 정치적 아젠다의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코로나로 인한 격차를 좁히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기 위한 행동, 그리고 이후 목표 수립과 연대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유네스코 국제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 유니세프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및 교육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연대(Global Business Coalition for Education)가 주최한 민간부문 라운드테이블에서 교육부 장관 및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BM, 에란디 아펜데(Erandi Aprende), 타타컨설턴시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와 제이콥스 재단(Jacobs Foundation)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교육 차원에서 개인, 경제 및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s, PPPs)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민간 공공 파트너십은 개인이 배우며, 일하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과 더불어, 보다 확장된 역량의 개발을 돕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공공재에 기반을 둔 민간 공공 파트너십은 사회적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다중 이해관계자와 다중 부문 파트너십의 행동은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지할 것입니다.



PRME
an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ITED NATIONS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2022

#TransformingEducation
20 September 2022
4 pm EDT

HYBRID EVENT
**LEADERSHIP SKILLSETS AND SKILLING
FOR SUSTAINABLE BUSINESS**

 Sanda Ojumbo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CEO UN Global Compact	 John Goodwin Executive Chair The Learning Economy Foundation	 Ilian Mihov Dean INSEAD	 Sherwat Elwan Ibrahim Chair PRME Chapter Africa	 Andrew Jack Global Education Editor Financial Times (virtual)
---	---	---	--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이 공동주최한 ‘교육자를 교육하기: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리더십 스킬 양성을 위한 변혁적 교육(Educate the Educator: Transformative Pedagogies for Innovative Leadership Skills in the Private Sector)’세션에

패널로 참여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은 SDGs 달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다 큰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

“정부, 민간 부문, 비즈니스, 그리고 학교는 상호 상향식·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실행 가능하며, 보상이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관행과 교육 방식을 개발하여 고등 교육 기관 교육자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SDGs 를 위한 혁신적인 글로벌 경영 교육을 확대하는 시스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이 주최한 ‘리더십 역량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역량 개발(Leadership Skillsets and Skilling for Sustainable Business)’ 행사에서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학교와 학부의 역할이 논의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스쿨들은 미래의 관리자 및 리더로서 전 세계의 조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사회책임 경영교육과 레고재단(Lego Foundation)이 함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임팩트풀 파이브(The Impactful Five; i5) 프로젝트를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hris Purifoy, CEO of the Learning Economy Foundation; Daniel Wilson, Director of Project Zero at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ob Chapman, CEO of Barry-Wehmler, and Kenisha Arora, the Youth Representative on SDG4 High-Level Steering Committee, Assistant Secretary-General; Executive Director and CEO of the UN Global Compact Sanda Ojiambo; Minister of Education of Costa Rica, H.E. Anna Katharina Muller Castro, and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pain to the United Nations, H.E. Agustín Santos Maraver; H.E. Edna Bonilla, Secretary of education in the district of Bogota, Colombia; Andreas Schleicher, Director for Education and Skills, OECD; Simon Sommer, Co-CEO, Jacobs Foundation; Naria Santa Lucia, General Manager, Digital Inclusion and US Community Engagement, Microsoft; William Florance, Government Relations Program Lead, EMEA, Google; Justina Nixon, CSR Vice President, IBM; Andrea Remes, Co-Founder and CEO, Erandi Aprende - Youth representative; Luciano Rodembusch, President, Pandora North America; Balaji Ganapathy, Chief of CSR, Tata Consultancy Services; Ilian Mihov, Dean, INSEAD; John Goodwin, Executive Chairman, The Learning Economy Foundation; Andrew Jack, Global Education Editor, The Financial Times; Sherwat Elwan Ibrahim, Professor, American University of Cairo; and Mette Morsing, Head, PRME.

유엔 교육정상회의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2021 년 9 월 발족한 공동 의제([Our Common Agenda](#))의 핵심 이니셔티브입니다.

[자세히 보기](#)

4.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 발족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리더의 발전 장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GABI) 발족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폐회하며, 정부, 산업, 자선단체의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향한 비전예의 기여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가속화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ed) 유엔 사무부총장

“우리가 세계에서 찾고 있는 연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집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리더십과 해결 방안은 지금 대륙에서 나오고 있다.”

Unstoppable Africa 라는 헤드라인 아래, 이틀 간 열린 GABI 론칭 행사는 비즈니스, 비영리, 정치적, 미디어, 그리고 문화적 리더들이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만들고 2 조 5 천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시장이 제공하는 거대하며, 막대한 가능성을 지닌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를 알아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아프리카의 성장세는 막을 수 없다. 아프리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주된 투자 목적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다.”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

“우리는 청년들의 잠재력을 발휘해야하며, 창업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창업은 혁신, 창의력, 기술의 힘을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40 명이 넘는 패널과 강연에 걸쳐, 각계의 리더들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이 직면하는 정치, 무역 및 금융, 의학, 패션, 스포츠, 비영리, 예술 그리고 음악 분야를 아우르는 도전과 기회를 다뤘습니다. 연사들은 전기 통신, 의학, 그리고 금융에 이르는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최근 및 잠재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현 기술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은 사실 기회이며, 보다 새롭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의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구적 리더 및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의 금융 섹터 개방을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논의에는 스탠다드뱅크(Standard Bank) 그룹이 6,000 만 달러를 투자해 론칭된 10 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여성 임팩트 펀드(\$1 Billion African Women Impact Fund)의 선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또한 주요 논의사항이었으며, 이에 아프리카가 급속도로 성장 중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창조적 경제 산출물의 핵심 지역이고 그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의 발족은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함께 주관했습니다:

African Union, UNDP Africa,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the UN 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on Africa, the 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is supported by Afreximbank, Google, Rockefeller Foundation and Mastercard Foundation. Speakers included UN Secretary General António Guterres; Vera Songwe, former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H.E. Moussa Faki Mahamat, Chairperson, African Union Commission; H.E. Paul Kagam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Eric Adams, Mayor of New York City; Strive Masiyiwa, businessman and philanthropist; Benedict Oramah, President and Chairman, Afreximbank; Sanda Ojiambo,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CEO, UN Global Compact; Adam Silver, CEO of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Bela Bajaria, Head of Global TV Netflix; Masai Ujiri, Vice Chair and President of the Toronto Raptors; Robert Smith, Vista Equity Partners; Melinda Gates,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Darren Walker, President of the Ford Foundation; Angélique Kidjo, Grammy Award-winning musician and activist; Omoyemi Akerele, Founder, Style House Files and Lagos Fashion Week; Julie Gichuru, Mastercard Foundation; Ruth Porat, Chief Financial Officer of Alphabet and Google; Dr. Rajiv Shah, President, Rockefeller Foundation; Antha N. Williams, Bloomberg Philanthropies; Lindeka Dzedze, Executive Head of Institutional Clients, Standard Bank Group; and Dr. Senait Fisseha, Director of Global Programs at Susan Thompson Buffett Foundation.

GABI 이니셔티브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성장 기회에 리더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HL만도 소개

SAFER

세상을 더 안전하고



GREENER

친환경적이며



EASIER

편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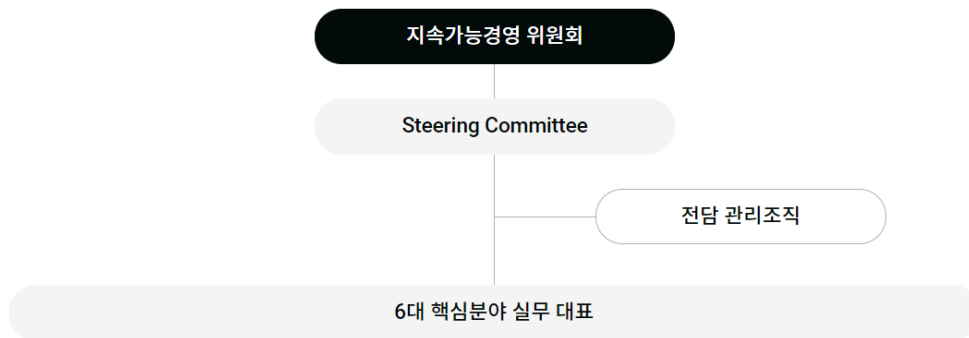
HL만도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해외 각지의 완성차 업체 약 6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있는 글로벌 사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비롯한 제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부품부터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자유로운 이동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에는 HL만도가 속한 한라그룹의 사명이 더 높은 삶을 추구한다는 'Higher Life(하이어 라이프)'라는 의미를 담은 HL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명인 만도에서 HL만도로 사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2 HL만도의 지속가능경영체계

HL만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6대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글로벌 챔피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6대 글로벌 챔피언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지속가능경영 추진단 대상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 수립, 과제 수행 현황, 활동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단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에 연 2회에 걸쳐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며, 월별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 이행방안 및 목표달성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에 확산하고 실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CEO, 6대 챔피언을 포함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KPI를 도입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3 ESG 핵심 활동 사례

3.1 [Governance] 거버넌스/윤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및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입니다. 이에 HL만도는

이사회, 리스크 관리, 정도경영 관련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평가

HL만도는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지배구조현장 내 독립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견제 기능이 활성화된, 다시 말해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 성별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여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1년부터는 이사회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조,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평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재무뿐만 아닌 비재무 리스크의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유관 부서에 리스크 관리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분기별 회의체에서 위험성을 관찰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리스크 관리 위원장(CRO, Chief Risk Officer)을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 [Environmental] 환경

HL만도는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탄소중립 관련 활동에는 더욱 큰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HL만도는 기존 탄소중립 달성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사업장뿐만 아닌 전체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Action Plan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Action Plan으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한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저탄소 원자재 및 부품의 우선 구매, 협력사의 탄소배출량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HL만도의 현황, 목표 달성의 현실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Action Plan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녹색 채권 발행

2021년 상반기 HL만도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업계 최초로

1,5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HL 만도의 녹색 채권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 관리 적정성 등 모든 범주에서 '매우 우량' 평가를 받으며, 녹색채권 최고 등급인 'Green 1'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조달 받은 자금은 친환경차 부품 관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HL만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 [Environmental, Social] 공급망 관리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곧 그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HL만도는 공급망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협력사 행동강령 제정, 협력사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며, 특히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분쟁광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HL만도의 리스크 사전 예방 및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협력사 대상 지속가능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산업별 특화 분야와 관련된 20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의지로 진행됩니다. 서면 평가 이후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협력사로 구분된 협력사가 있는 경우 지원활동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사용 관리

분쟁광물의 경우 아동노동, 인권, 환경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이기에 HL만도의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분쟁광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OECD의 Due Diligence Guidance 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분쟁광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광물 정책에 의거하여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윤리적 조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에 분쟁광물 관련 규범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설명회와 교육, ESG평가를 통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추후에는 협력사가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더욱 책임있는 분쟁광물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4 [Social] 노동인권/안전

HL만도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인권영향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HL만도는 인권의 주요 10개 분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주기는 연간 1회이며, 2021년 까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장은 국내로 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평가의 범위를 해외사업장까지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HL만도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리스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결과 분석을 수행하여 중점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평가

HL만도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 정기/수시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의 주요 목적은 발생 가능한 사고와 재해를 사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며, 정기평가는 매년 그리고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가 발생된 경우, 안전재해의 발생의 경우, 작업 방법이나 절차가 도입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성격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결과 HL만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비율은 글로벌 사업장 기준 95%에 달합니다.

3.5 [Social] 사회공헌

HL만도는 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환경,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창출해 내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추진 방향성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MOVE TOGETHER (교통약자 및 사회적약자 지원), GREEN TOGETHER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DREAM TOGETHER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미래 세대의 지원과 양성), HAPPY TOGETHER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빌리티 관련 사회공헌

HL만도는 2012년부터 '사랑의 오펝이 휠체어' 기증 활동을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정하여 기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故)정인영 한라그룹 창업 회장의 '오펝이 정신'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527명에게 사랑의 오펝이 휠체어를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 기여하고,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실천 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부 정책의 시행을 맞아 공단과 노사가 매칭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후원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후 경제적 문제로 자립 통장에 불입하지 못하여 정부매칭금이 지원되지 않는 유자녀에게 후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년 이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였으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정에게 심리상담 케어를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반려나무 나눔 캠페인

HL만도는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반려나무 나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한 달간 사무실에서 반려나무 화분을 정성껏 키워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나무를 키우는 동안 임직원 간의 유대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나무를 들여오는데 사용된 기금은 가을 숲 조성에 쓰이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되새기는 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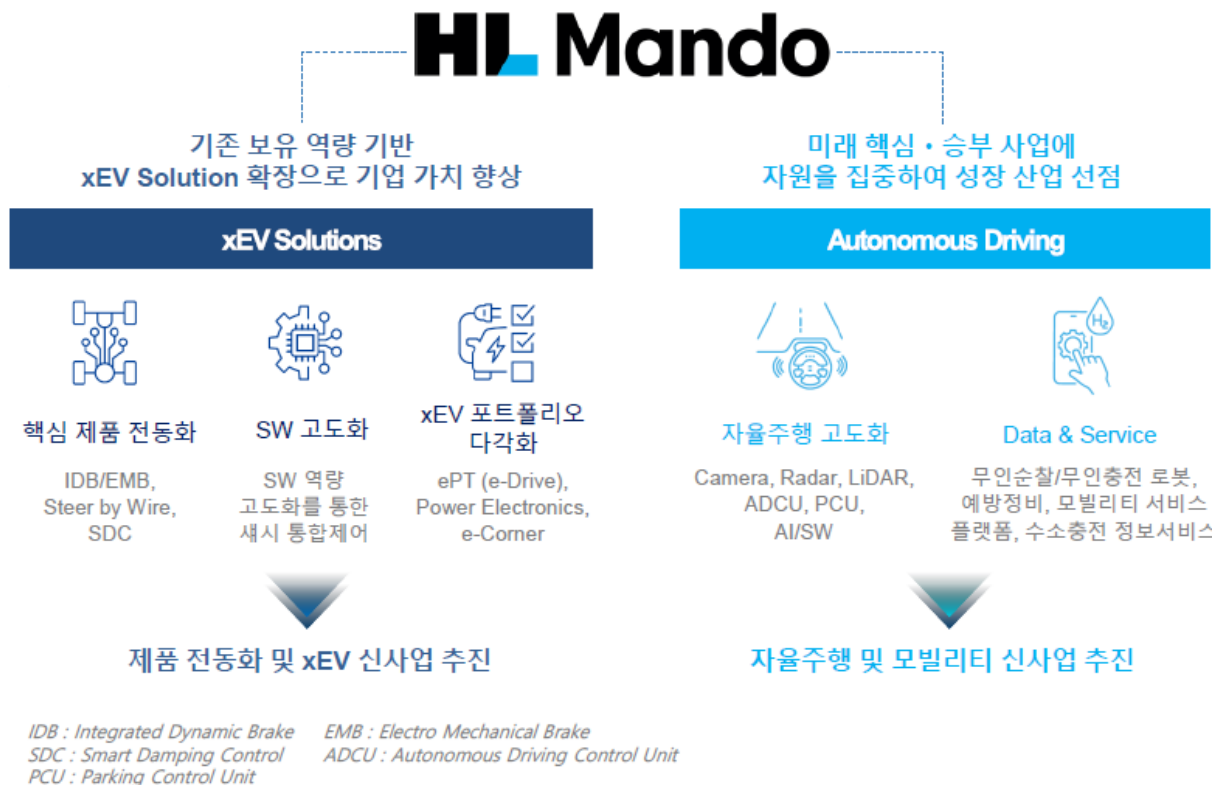
자리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3.6 [Environmental, Social] 기술혁신

HL만도가 속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CASE (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로 통칭되는 메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Electrification이 의미하는 전동화와 Autonomous가 의미하는 자율 주행은 HL만도 사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제품 친환경성, Clean Technology,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 증가하는 이해관계자 관심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 HL만도는 위 두 개 분야에 집중하는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안전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솔루션 제공

2015년 전 세계 주요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후, 자동차산업이 Post-내연기관 시대를 준비중인 가운데 HL만도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을 두 가지 축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성장 전략은 단순히 사업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닌 친환경차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자율주행을 통한 이동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와 같은 Positive Impact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위 방향성에 맞춰 HL만도는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차별화된 만도 고유의 친환경차 솔루션을 바탕으로 개발된 Steer by Wire, IDB2 HAD (Integrated Dynamic Brake for Highly Autonomous Driving)가 2년 연속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SDGs 목표 기여

4.1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HL만도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을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UN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외 2021년부터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하여 환경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니셔티브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 환경부 주관하에 진행되는 K-EV100 이니셔티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RE100 (Renewable Energy 100), EP100 (Energy Productive 100)와 같은 환경분야에 초점을 둔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져갈 계획입니다.

4.2 SDGs 목표 기여

HL만도는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의 대표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함과 동시에 UN SDGs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Goal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지역사회에 대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2014년부터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평택, 원주, 익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인도, 독일, 미국, 브라질, 폴란드 등 자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내 인프라 구축 지원, 장학금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 증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안전속도 5030 실천 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명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주문 제작된 전동·수동 휠체어를 기증하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기부하는 등 자사의 모빌리티 분야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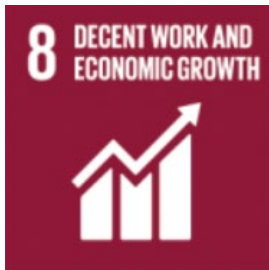
Goal 4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주요 구성원이자 핵심 경쟁력인 임직원들을 위해 임직원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자율형 R&D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oal 7 :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사용

‘친환경 Green Factory 실현’을 목표로 2002년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 TFT를 구성하여 사업장 환경에 맞춘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HL만도의 브라질 생산법인인 MCB의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익산/평택사업장의 시설물 임대를 통해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Goal 8 :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의 역량이 곧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시스템 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무상 제공, 자금 지원 등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Goal 9 :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HL만도는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경험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L만도는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이라는 가치 아래, 더욱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고객의 자유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Goal 10 :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며 불평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인권경영선언문 공표를 시작으로 국내사업장 인권영향평가와 국내외 사업장의 고충처리채널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 불평등을 감소하고 개개인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al 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대응 활동

HL만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로 단기('25년), 중기('40년), 장기('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SDGs 솔루션] 새로운 차원의 도시농업 -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식품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홍콩과 중국 전역에서 다양한 도시 농업 솔루션을 설계, 구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홍콩과 중국에서 도시 농업 솔루션을 설계, 설치 및 유지하기 위해 건축가, 엔지니어, 유기농 농부, 요리사, 영양사와 협력하는 중입니다. 또한 도시 농업이 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도시 설계 및 일상생활을 위해 도시 공간 및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다른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유기농 농산물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식품 및 음료 아울렛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공동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공공 차원의 활동으로는 소외 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는 수단으로 도시 농업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협력하고, 지역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에 농업이 포함되게끔 노력합니다. 또한 도시 농장이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의 일환이 되도록 개발자들 및 건축가들과 협력, 다른 이니셔티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의 서비스는 지금까지 인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55,000 평방피트의 토지에 54 개의 농장을 지어 유휴 도시 공간을 도시 농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지역 농업에 대한 지역 인식과 지원을 견인하고 있으며, 550 개 행사를 진행하고 14,000 명을 참여시키는 등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2 기아의 종식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지역 사회 전반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촉진 및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식량자원을 재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2,400 개 이상의 도시락을 기부했습니다.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루프탑 리퍼블릭(Rooftop Republic)은 녹색 도시 공간을 적극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각장애인 9 명을 대상으로 도시 농업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카카오페이 "국내 핀테크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카카오페이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 UNGC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엔의 최대 규모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현재 세계 177 개국 2 만여 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
- UNGC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엔의 최대 규모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현재 세계 177 개국 2 만여 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UNGC 가입을 시작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기업지배) 경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전사적 차원에서 녹여내고 카카오페이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 네오이문텍,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도입 첫삽



- T 세포 증폭 유도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인 네오이문텍,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고 밝힘.
- UNGC는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에 창설된 이니셔티브로, 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음.
- 네오이문텍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시작으로 향후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

뉴스스

3. 국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 환경부문 개선돼



- UNGC 한국협회가 기업 실무진 120 여명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준법경영 시스템이 2018 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은 부패 방지 환경 조성 과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 등 측면에서 2018 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반부패 공시와 위반사항 탐지·보고·해결과 관련된 항목이 크게 개선 되었음.
- 기업 임원 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컴플라이언스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됨. 이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컴플라이언스 관리는 기업의 장기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음. 또한 3 년 전과 비교해 기업 내부에서 준법윤리경영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함. 중요성이 강화된 이유로는 고객·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강화(63%)와 ESG 경영에 따른 반부패 강화(52%)를 꼽음.

매일경제

4. "부패는 기업의 비용...기업 내 반부패 문화 필요"



- UNGC 한국협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BIS 임팩트 포럼 공동 개최해,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 정하중 한국 지멘스 대표이사, "반부패는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키우고 적절한 윤리주권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ESG 측면에서 한국 기업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특히 거버넌스 지수는 그렇지 못하다"며 "부패는 기업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반부패 및 윤리 준법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상 축사 통해 "부패를 어떻게 측정할지가 매우 어렵다"라며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GDP 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부패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을 듯한데, 아직 부패 인식 지수는 부패 인식을 척도로 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부패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청렴과 정직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어 토크콘서트가 이어졌으며, 이경훈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반부패 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가 사법적인 제재를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가 적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좋은 고객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사업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며 "기업 처벌 방식도 기업 법인에서 개인, 최고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로 확대되고 있다"며, 반부패의 중요성 강조함.
- 특히 이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임팩트 서베이 결과 공유를 통해 2018 년에 비해 올해 국내 기업·기관들의 윤리경영 시스템은 10 개 항목에서 모두 개선되었음을 발표함. 특히 △고위경영진 지지선언 △반부패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내부통제 등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가장 큰 개선은 △공시 △위반사항 탐지·보고·해결 항목에서 나타났으나, △준법 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급망 등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함.

5. [BIS 임팩트 포럼] "부패 방지 위해 예방 중심 ESG 정보 공시 필요"



- 30 일 열린 BIS 임팩트 포럼에서 ESG 정보공시가 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단순 결과 중심의 공시 지표가 아닌 아닌 예방 중심의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유됨.
- 'BIS 임팩트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는 BIS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한 반부패 확산 정책들과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업 반부패 제고를 위한 시장 규율 환경 조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법규 강화와 시장 규율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인 'ESG 정보공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함.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부패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리 문제 발생 건수와 같이 결과만 아니라 기업들의 예방 노력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정보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기업 관계자, 데일리임팩트에 "부패를 막기 위해 ESG 공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 공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아직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데일리임팩트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7 곳입니다.

- (주)신세계
- 한국평가데이터
- 이엔에이스위트호텔
- (주)유한양행
- 수협은행
- 스튜디오드래곤
- 강원도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9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현대모비스
- 법무법인(유한) 지평
- 한전 KDN
- 엠와이소셜컴퍼니
- SK 하이닉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 국제융복합협회
- 아모레퍼시픽
- LG 생활건강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한국석유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 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 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 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 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 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큐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엔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효성첨단소재](#)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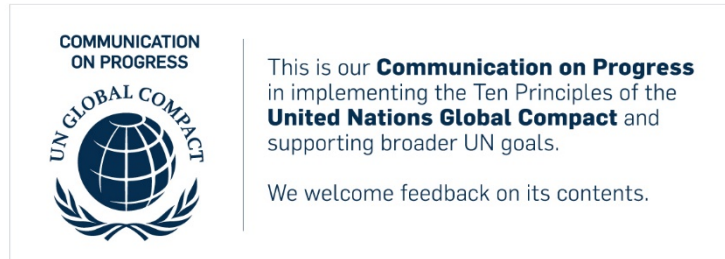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